

학생선발과 대학교육의 방향

권진혁 | 영남대학교 입학처장

I. 들어가는 말

최근 조사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사교육비는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TOEIC 실력은 152개국 중에 110위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교육에 쏟아붓고도 그 효과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 교육에 열성이고 영어 학원이 번창하지만 막상 영어 실력은 별로이다. 노력 대비 그 결실이 적은 것은 교육의 철학이나 방법 또는 교육 체제에 어딘가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 결함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숨어 있으며, 어떻게 찾아서 고칠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해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행 400점 만점에서 20~30 등급으로 함으로써 점수 몇 점에 인생이 좌우되는 모순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실제로 점수 몇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력, 원활한 사회 생활을 통

하여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인간 관계 등이지만 이것은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렵고 비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삶을 통하여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자질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한된 입학 정원을 두고 몰려드는 수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점수로 수치화 하는 것만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대책이었다.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밑도는 역전현상이 벌어졌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일부 전문대학과 하위권 지방대학이 학생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다수의 중상위권 4년제 대학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수 중심의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학생의 특기와 활동 등 학교 생활과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다양한 입시 제도의 길을 열어 놓았다.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모집과 내신 성적과 특기 및 면접 중심의 수시 모집이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적 길을 개척하였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학생 선발의 방향이고 앞으

“

수년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수 중심의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학생의 특기와 활동 등 학교 생활과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다양한 입시 제도의 길을 열어 놓았다.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모집과 내신 성적과 특기 및 면접 중심의
수시 모집이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적 길을 개척하였다.

”

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1/3 가량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학생 선발의 역사에서 획기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기교적인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본래의 취지를 강화시켜 간다면 중등 교육 정상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수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의 절대 비중을 높임으로써 지역간 격차 해소와 특정 지역 인기 학군 지역에 대한 과열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신 성적은 지방이나 비인기 학군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입시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최근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특기나 적극성 등 인성적 요소에 의하여 대학 진학의 기회가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수시 모집제도에서 보완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이 올바르게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간다면 이는 지

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정량화된 수치 중심의 입시제도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소양이 대학 입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선진형의 입시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대학에서 면접할 때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험생들의 재치나 유머, 여유와 풍부한 상식, 밝은 표정, 강한 주장, 특출한 학생 봉사 경험, 수상 경력 등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장래 사회 생활에서 성공하고 지도자적 자질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덕목들이다. 수치화된 수능 성적 중심의 입시 전형으로는 이런 덕목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 오랜 세월 수치화된 입시에 적응이 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입시 제도가 서서히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Ⅱ . 7차 교육과정과 새로운 수능능력시험

교육인적자원부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받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와는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수능

능력시험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핵심적 개념은 다양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모두 동일한 잣대로 수치화하여 대학 입시에 한 줄로 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문·사회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로 구분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사회 탐구의 전과목을 시험보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수학에 자신이 없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영어만 시험볼 수도 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지과학과 뇌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알려졌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은 우수하나 수리 능력은 매우 떨어지거나 혹은 그 반대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자기의 소질이나 활동 영역과 상관없는 과목으로 인하여 그 학생이 절망하게 되고 문제아로 낙인 찍혀 실패하는 인생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는 그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그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소질을 키워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대학 측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대학의 입시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도 대학, 학부, 또는 전공별로 반영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과 대학 양측이 입시 과목의 선택에 관한 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자칫하면 완전한 자유는 혼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질서 붕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설계된 것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 부담을 덜어 주고,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형 수능제도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 과목을 지정하고, 과학 탐구, 사회 탐구, 직업 탐구에서 1개 영역 4과목을 지정하는 것을 표본 모델로 추천하고 있다(2+1(4)).

실제로 전국 각 대학에서 지정한 것을 보면, 수도권외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3+1(4)을 채택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대학이나 지방대학들은 2+1(2) 제도를 택하고 있다. 3+1(4) 체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으며, 2+1(2) 체제는 선택과목이 너무 적어서 고교 교육 과정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2+1(2) 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학생 유치가 시급한 대학들로서는 특정 과목을 지정하거나 과다한 과목 수를 지정함으로써 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목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일단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을 마친 다음에 2, 3학년에 걸쳐 선택형 교과목을 이수할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몇몇 과목만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학교는 효율성을 위하여 몇몇 과목만 집중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걱정되는 점은 오히려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육성하는 데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교육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

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대학일지라도 경쟁력이 충분한 학부나 학과들을 중심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1(4) 체제를 선택하고, 경쟁력이 약한 학부나 학과들은 2+1(2)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선택가능한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고교 2, 3 학년 과정이 완전 선택형 심화 수업 형태로 바뀌고, 수학능력 시험도 선택형으로 바뀌어 총점이 사라지고 과목별 점수만 제공됨으로써 총점에 의한 대학 서열화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3+1(4) 체제와 2+1(2) 체제라는 새로운 틀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서열화가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속적으로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의 학부나 학과별로 차별화된 선택과목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층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모든 학부 또는 학과가 동일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사한 체제를 제시하면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즉, 각 학부 또는 학과에 최적의 소질을 갖춘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선택과목을 구성하여 대학간 또는 학부간 다양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교에서 선택형 심화 학습을 통하여 몇몇 과목만 수강함으로써 학문간의 상관관계를 상실할 위험성과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교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수학 능력은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고등학교의 교과목들은 대부분이 기본 교양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인 수준에

서 모두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자연계열을 예로 들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네 가지 선택과목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들이고, 이후 대학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 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 얼핏 보기에 물리학과 생물학은 독립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생물학 분야에서 창의성, 전문성,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양 물리는 필수적 기초 지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제외하는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후 창의성과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물학도 분자적 수준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물리적·화학적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이러한 기초 교육의 중요성은 훨씬 크다. 이공계의 경우 물리와 화학은 그 핵심적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이해가 없이는 응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을 소화할 수가 없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 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연현상의 기초원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서 흥미를 상실하게 된 것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을 모두 이수하고 심화 학습에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과목 II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 자율적 선택이라는 틀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찾게 마련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기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자연 계열 진학자들의 기초과학 학습 능력의 저하라는 문제는 대학 교육의 개혁을 통하여 보완되

어야 한다. 대학의 교육은 교양 교육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교양 교육은 인문학적 교양 교육과 전공기초 교양 교육으로 세분화된다. 선진 각국의 대학 교육에서는 전공기초 교양교육의 역할과 비중을 크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다.

Ⅲ. 대학의 교육 방향

앞에서 논의된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입시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학들은 최근 진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스스로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장단기적으로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요소는 진학인구의 감소이다.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친 약 3년 동안에 대학 진학 인구는 90만 명 수준에서 60만 명 수준으로 거의 1/3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1자녀 시대를 맞아 현재 1~5세의 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15년 후쯤에는 현재 진학인구 60만 명의 70% 수준, 즉 약 4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 2000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많은 대학들과 지방 사학들이 대거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위협 요소는 교육 개방이다. 2003년도에는 교육개방이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큰 영향이 없었지만, 수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개방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은 국내 우수 자원의 해외 유출과 함께 지방대학 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위협 요소는 디지털 대학 또는 사이버 대학의 확산이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대학의 확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 대학의 틈새 시장의 성격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 기술적·법적·제도적 변화와 함께 교육의 중심부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의 전자 강의 소프트웨어는 영상과 음성이 뛰어나고,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기억장치로부터 불러내어 몇 번이고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디지털 대학이 세계 최고 강사의 강의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기존 대학의 교육 체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대학들은 정보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하고, 진학 인구의 감소에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교육의 혁신이다. 대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 자질

대학 경쟁력의 기본은 학생으로부터 나오며, 학생의 자질, 교육과정, 졸업 후 학생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학생 능력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대학은 서열화와 복수 지원으로 인하여 학생 자질도 서열화되어 있다. 즉,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다. 그러나 졸업시의 학생 능력은 4년 내지 8년의 교육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성이 개발되어 고교 시절에 숨

“

대학들은 정보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하고,
진학 인구의 감소에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교육의 혁신이다.

”

겨진 새로운 역량이 개발되기도 한다. 또한, 산업
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이 반드시 일류대
학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오히려 중류급 대
학에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형 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입학시의 획일화된 자질보다는 잘 짜여
진 차별화되고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정에 의해서 졸업시에는 훨씬 실무적 능력이 있는
학생 배출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원의 선발에 있어서 기능
과 역할에 따라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류대학교 우선의 획일적 선발은 결국
자기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여 수년 이내에 이직하
는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사원 양측
에 낭비와 손실만 초래하기도 한다. 기업에서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인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바
람직한 교육과 취업의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

2. 교육과정

대학은 다양한 학과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
성되어 있어서 통일된 원리와 방법론을 찾기가 매
우 힘들다. 또한, 학생들의 진출방향과 장래 직업
도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

일화된 행정시스템과 교육과정 때문에 경쟁력 향
상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의 연계성,
- 전공 교육과정과 산업 실무과정의 균형,
- 의사표현, 추진능력 및 대인 관계

등에 있어서 균형있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
어야 한다. 또한 전공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성과
특성화를 배려하여야 한다.

졸업생이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개인적 사
업이나 직장 업무를 수행할 때 성공적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 자질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연마되
어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표현, 협동성, 인내성 등
의 인성과 실무형 전문지식, 전공 분야의 탁월성,
리더십 등 전문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학에서는 이런 부
분의 교육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중등교육과
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부분의 교육을 강화함으
로써 배출되는 졸업생들의 자질이 차별화되고 경
쟁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3. 진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진

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장래 직업 혹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진로는 크게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과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뉜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전공 교과 교육 외에 실험 실습 교육이 중요하며, 또한 외국어 능력, 전산 능력, 발표력, 실무 한자 등이 많이 작용한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을 위하여 전공 교과 교육과 외국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진로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인성 함양과 상식의 폭을 넓히는 교양 교육과 실용성이 결합된 전공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기업체에서는 신입 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재교육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재정을 감당하고 있다.

[그림 1]은 진로를 고려한 이공계의 선택형 대학 교육과정의 모델을 예시하고 있다. 교양과정 속에는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인문 사회적 교양과 과학 및 정보화 시대에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적 교양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과학 기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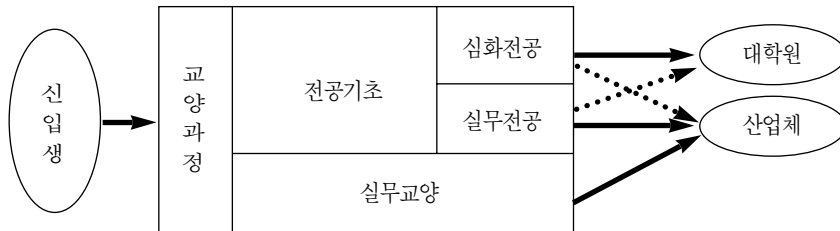
문화의 심층으로 침투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하고 삶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현 시대를 생각하면 인문학적 교양과 과학적 교양은 분리할 수 없다.

전공 기초는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과학의 깊이 있는 과목으로서 원리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심어 줌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응용력을 높여 심화전공과 실무전공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미국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ABET)과 한국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ABEEK)에서도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심화전공은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깊이 있는 전공과목들로서 각 전공의 핵심 과목들로 구성되며, 3, 4 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실무전공 교과목들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전공과목으로 구성되며, 산업체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전공 교과목들은 산업체로부터의 요구 사항들이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산업체와 대학의 실질적 연계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은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실무교양 교과목은 외국어(회화, TOEIC,



[그림 1] 진로를 고려한 선택형 대학 교육과정의 예시

TOEFL, 중국어, 일본어 등), 전산(MS Office, Matlab, 기타 설계 프로그램), 발표력, 실무한자 등 실무에서 많이 요구되는 지식들로 구성된다.

IV. 맺는 말

최근 앨빈 토플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급속히 지식기반형 정보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제 2 물결형 산업사회로부터 제 3 물결형 정보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춰 입시제도와 교육과정도 변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제 2 물결적 체제로부터 제 3 물결적 체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혼돈이 증폭되고 사회적, 경제적 낭비가 과다할 수 있다. 깊이 있는 연구와 정부 - 학교 - 기업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선진형 입시체제와 교육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구성원은 역시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와 교수들이다. 학생들과 사회는 변화하는데 낡은 방식과 지식을 가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교사와 교수들은 많은 갈등 속에 노출된다.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최종 교육기관이고, 대학의 교육과정은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

겨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새로운 지식을 강의하는 주체인 교수들의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

비록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서열화되어 있고, 대학들도 서열화되어 있지만, 대학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되고 실무적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선택형 수학능력시험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면, 이제는 대학을 서열화하는 점수도 사라질 것이다. 언론사들과 대형 입시학원들도 진학 기준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앞으로는 평가제도가 발달할 것이고, 대학보다는 학부나 학과 중심의 새로운 서열이 발생할 것이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우수한 교육과정을 갖춘 학부나 학과들이 상위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진학인구의 감소와 함께 새로운 입시제도는 대학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것이다. **대입**

권진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스탠포드대학교 방문교수, NASA Langley 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영남대학교 광전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입학처장을 맡고 있다.